

#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에 관한 고찰\*

성 태 수

## 차 례

- I. 서론
- II. 비명시논항에 대한 고찰
- III. 표층주어해석
- IV. 제안 및 적용
- V. 결론

## 1. 서론

이 논문은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가 가지는 한정적/비한정적 의미자질을 살펴보고, 이 의미자질에 따라 실제로 중간동사구문이 얼마나 다양하게 도출되는가를 예문과 함께 알아본다. 제 2장에서는 중간동사구문의 비명시 논항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이 특징들이 표층 주어의 한정적과 비한정적 의미적 특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본다. 제3장은 중간동사구문의 일반적인 성질을 기술하는 피영향성 제약과 제일 책임성 제약의 한계가 표층주어의 한정성 유무로 보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 4장에서는 중간동사구문을 표층주어의 한정성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이들을 능력동사구문의 특징과 비교한다. 두 구문 표층에 행위자 주체가 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타동사를 가지고 수동의미를 가진 자동사 형태의 동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 구문의 유사점을 고찰해 보고, 각 구문의 차이는 표층 주어 가 가지는 의미적 특질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결론을 요약한다.

\* 이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2010년 교내학술지원기금으로 연구되었음.

## 2. 비명시 논항에 대한 고찰

### 2.1. 비명시 논항의 지위(status)

중간동사구문은 능동형 자동사 형태의 동사로 표층 주어의 속성을 기술하는 구문이다. 반드시 중간동사구문은 상응하는 타동사 구문의 존재하며 타동사의 목적어가 중간문의 주어가 되고 수동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게다가 행위자(agent)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나 심층 해석상으로 존재하며 부사구와 같은 수식어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중간동사구문의 비명시 논항과 관련된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자. 중간동사구문 (1)의 비명시 논항은 통사구조에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 기저에는 존재한다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저에만 존재하므로 수동구문 (2)에서와 같이 표층에는 이차적인 술어 부가어(secondary predicate adjunct)와 같은 형태의 행위자 주어가 나타날 수 없다.

- (1) a. \*The floor waxes easily by John/people.  
b. \*This metal rod bends easily even by a very weak person.
- (2) a. The floor is waxed easily by John/people.  
b. This metal rod is bent easily even by a very weak person.

중간동사구문의 비명시 논항이 'by+명사구'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도구를 나타내는 'with+명사구'와 공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3)에서와 같이 중간동사구문이 'with+명사구'와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자의 존재를 암시해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Hale and Keyser 1987).

- (3) a. The door opens easily with a push.  
b. Any wood polishes easily with our new product.  
c. This glass shatters easily with a heavy iron mallet.

또한 중간동사구문은 with {no, little, a little, some, a lot of} effort와 {with, without} difficulty와 같은 구와 공기할 수 있다. 이런 한 표현들은 모두 행위자의 노력을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 (4) a. This floor waxes with no effort.
- b. Old cardboard cuts with little effort.
- c. This property translates without difficulty.

한편 Iwata(1999)는 중간동사구문을 총칭적 중간동사구문과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는 총칭적 중간동사구문과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에 비명시 논항이 존재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총칭적 맥락에서 두 구문은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3)과 (4)에 총칭적 의미를 가진 비명시 논항이 존재한다면, (5)와 같이 진행형과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중간동사구문에는 비총칭적 비명시 논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5) a. This car is handing smoothly./ This car handled smoothly.
- b. This wall is painting easily./ This wall painted easily.
- c. This floor is waxing easily./ This floor waxed easily.

(5)에서 차를 실제로 조정하고 있거나 조정했던 사람은 총칭적 의미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차를 조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다. 역시 구체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진행형 또는 과거 시제와 함께 나타난 중간동사 ‘paint’와 ‘wax’도 페인트칠이나 왁스칠을 한 구체적인 행위자 논항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명시 논항은 동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중간동사의 해석에도 나타난다.<sup>1)</sup>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발생하는 원인이 중간동사구

---

1) Keyser and Roeper는 중간동사구문에 존재하는 비명시 논항이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외재논항으로서 통사적으로 제어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제약은 주어로서의 논항의 지위는 상실했으나 의미적으로 통사적으로 비명시 논항의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동태구문의 비명시 논항은 부가어로 출현하여 PRO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 비명시 논항은 수동태구

문 표층주어의 한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 2.2. 표층주어의 의미역

중간동사구문에 함축되어있는 비명시 논항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 비명시 논항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비명시 논항이 방출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방출이란 논항이 삭제나 억제와 다르게 통사적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아직 상실되지 않은 논항을 지칭한다. Roberts(1987)은 중간동사의 내재 논항이 외재화된 후에 외재논항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논항으로 실현될 수 없는 해지논항이 된 것으로 가정한다. Fagan(1988)은 중간동사에서 원래 타동사의 외재논항이 어휘부에서 포화(saturation)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의 문제는 중간동사의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내재논항이 대상역(theme)이나 수동자역(patient)을 가지고 외재화되는데 대상역이나 수동자역과 다른 의미역을 가지는 논항이 중간동사구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sup>2)</sup>

문에서 목적절의 주어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by+명사'로 나타날 수 있다.

(i) a. The book was sold [PRO to make money]

b. The bottle was broken by John.

이와 같이 수동태구문의 비명시 논항과 다르게 중간동사구문의 비명시 논항은 부가어로 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RO를 통제할 수 없다.

(ii) a. \*The book sells well [PRO to make money]

b. \*The bottle breaks easily by somebody.

수동태구문의 외재논항은 제한적인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나 반면 중간동사구문의 외재논항은 완전히 삭제되어 통사적으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예를 들어 위 (i)의 수동태구문에서 억제된 논항은 목적절의 주어인 PRO의 선행사 역할을 한다. 반면, (ii)의 중간동사구문에서 삭제된 논항은 PRO의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차 술어 부가어인 'by+명사'구가 나타날 수도 없다.

2) 타동사의 수동자역 뿐만 아니라 대상역, 도구역, 심지어 장소역을 지니는 모든 명사구가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가 될 수 있다 (Chung 1995).

(i) a. The glasses break easily. (수동자역)

b. The books read easily. (대상역)

c. The marks hit easily. (목표역)

d. The piano plays easily. (도구역)

- (6) a. This knife cuts easily.
- b. This pen writes well.
- c. This ink writes well.

(6a,b)에서 주어는 도구역(instrument)을 가지며, (6c)에서 주어는 재료역(material)을 가진다. (6a)는 ‘이 칼은 잘 든다’로, (6b)는 ‘이 펜은 잘 쓰여진다’, (6c)는 ‘이 잉크는 잘 쓰여진다’로 해석되며, 내부논항에서 도출된 논항과 다르게 공통적으로 부가어(adjunct)에서 도출된 논항들은 중간동사구문에서 비한정적 표층주어로 사용될 수 없다. (6)에서 표층주어들이 비한정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아래와 같이 불명확한 해석이 발생한다.

- (7) a. ?\*Knives cut easily.
- b. ?\*Pens write well.
- c. ?\*Ink writes well.

그러나 ‘cut’와 같은 동사가 내부논항에서 도출된 논항을 표층주어로 가질 경우 비한정 주어든 아니면 한정적 주어든 가능하다.

- (8) a. Paper cuts easily.
- b. The paper cuts easily.

(8a)와 같은 중간동사구문에서 ‘paper’는 비한정적 주어이고, 총칭적 의미의 종이가 잘 잘려진다는 속성을 의미한다. 또한 (8b)와 같은 중간동사구문에서 ‘the paper’는 한정적 주어이고, 비총칭적으로 사용되어 ‘이 종이’ 혹은 ‘이런 종류의 종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경우는 반복적으로 쉽게 잘려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속성적 해석과 지금 쉽게 잘려진다는 일회성 해석이 가능하다. 일회성 해석은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비총칭적 해석은 해당 중간동사가 진행상이나 과거형을 취할 때 분명해진다는 것을 예문 (5)에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상역이나 수동자역을 가진 논항은 총칭

---

e. The dogs frighten easily. (경험자역)

적 혹은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나 도구역이나 재료역을 가진 논항은 총칭적 중간동사구문보다는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에 발견된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가정해 본다. 첫째,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는 사건에 대한 제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이 가정은 도구역이나 재료역 논항들이 총칭적 중간동사구문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실제로 (7)에서와 같이 도구역이나 재료역을 가진 논항들은 사건에 대한 제일 책임성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동사가 총칭적 혹은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표층주어의 한정성과 관련이 있다. 이 가정은 (8)에서 동일한 cut동사가 (8a)에서는 비한정적 표층주어를 가지고 있으며, (8b)에서는 한정적인 표층주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3. 표층주어 해석

다음은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가 기저에서 동사에 의해 영향받을 (affected) 경우 형성될 수 있다.<sup>3)</sup> Fellbaum & Zribi-Hertz(1989)은 논항의 내재적 속성이 변화된 것을 논항이 영향받은 것으로 정의한다.<sup>4)</sup> 이러한 상태 및 속성의 변화에 기초한 피영향성 제약은 다음에 제시된 중간문의 적격성 여부를 설명해 준다.

- (9) a. The bottle breaks easily.  
b. \*The Eiffel Tower sees from my window.

3) Change of state is some property of the theme held before the time with respect to which the proposition containing the predicate is evaluated and fails to hold after that time, or vice versa (Roberts 1985: 394).

4) An argument A of a verb or predicate is AFFECTED by the action or process P referred to by the verb if the referent of A exists prior to P and if its inherent properties are modified by P (Fellbaum & Zribi-Hertz 1989: 28).

(9a)의 ‘bottle’이라는 대상역을 지닌 명사구는 ‘breaking easily’라는 동사의 행위에 의해 상태변화를 겪으므로, 중간문 (9a)은 피영향성 조건을 만족시킨다. 반면, (9b)의 ‘the Eiffel Tower’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여질 뿐 그 자체의 어떤 상태나 속성이 변하지 않으므로 예문(9b)는 피영향성 제약을 위반한다. (10a,b)의 ‘bridge’와 ‘poem’은 각각 동사 ‘build’와 ‘write’에 의해 창조되어진다.

- (10) a. \*This bridge builds easily.  
 b. \*This poem writes easily.<sup>5)</sup>

이 논항들은 자신들이 겪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지니던 어떤 본래의 상태나 내재적 속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조동사를 포함하는 예문(10a,b)가 중간동사구문을 형성할 수 없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Keyser and Roeper (1984)는 상태 및 속성의 변화에 기초한 이들 피영향성 제약은 다음의 문장들이 중간동사구문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1) a. This book reads easily.  
 b. Greek translates easily.

(11a,b)의 this book과 Greek은 각각 읽히는 것과 번역되는 것에 의해, 그들의 상태나 속성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영향성 제약에 따르면, (11a,b)의 read와 translate는 중간동사구문을 형성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 이들은 중간동사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sup>6)</sup> 여기서 피영향성조건을

5) 아래 (i-ii)의 write는 (10b)의 write와 다르게 중간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i) This pen writes well.

(ii) Love letters write easily. (Chun 2003: 145)

(i-ii)의 write가 (10b)의 write와 다른 점은 일정한 시간 동안 행위가 반복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b)와 (i-ii)의 문법성 차이는 write의 동사분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6) 피영향성제약은 또한 중간문의 주어가 동사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역(theme)이 아닌 도구역(instruments) 또는 장소역(locatives)일 경우의 적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11a,b)에서 읽혀지는 책과 번역되는 회랍어가 행위자의 능력이나 익숙함의 정도에 따라 표층주어가 가지고 있는 절대치에 약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건의 변화도 제약조건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11a,b)는 상태, 속성 혹은 사건에 기초한 피영향성 제약을 준수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감정적으로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를 아래와 같은 감정동사의 중간동사구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John frightens easily. (Chung 1995)

둘째, Van Oosten(1986)과 Fellbaum(1986)은 중간동사구문 표층주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해 일차적 책임(responsibility)을 지닌다고 한다. 즉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이 기술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동자 주어만이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 (13) a. The lawn mower handles easily.  
b. Sweatshirts wash in the machine.

Fellbaum(1986)은 (13a)에서 주어인 ‘the lawn mower’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3b)에서는 ‘Sweatshirts’가 기계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즉 (13a,b)가 중간동사구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주어의 특성이 동사의 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Oosten의 책임성 제약에는 문제점이 있다.

(i) The knife cuts well.

(ii) The aluminum pan bakes higher and browns evenly.

실제로 행위자역을 가진 논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미역을 가진 논항들이 실제로 중간문의 주어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7) 중간문에서 수동자 주어의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하여 van Oosten(1986: 460-461)은 수동자 주어는 어느 정도의 행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의사 행위자(quasi-agent)라 설명한다. 또한 Hale and Keyser(1986)는 구성적 행위자(constructional agent-role)라 칭하기도 한다.



Oosten은 이론상으로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해 수동자가 지니는 책임성 여부를 언급하지만, 동일한 동사라도 그들의 수동자에 따라 그들이 지니는 책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책임성 제약은 (14)과 같은 수동자의 차이에 따른 중간문 형성 가능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14) This piano plays easily.

(15) \*This sonata plays easily.

(16) ?\*Pianos play easily.

(17) ?\*Sonatas play easily.

(14)와 (15)에서 동사와 부사는 같고, 단지 수동자만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play라는 동사라도 그들이 지니는 수동자에 따라 책임성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책임성 제약이 중간문 형성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Lee(2010)는 (15)가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Lee는 드문 경우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this sonata'가 연주하는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작곡되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this sonata'가 예외없이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연주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16), (17)에서 표층주어가 비한정적으로 바뀔 경우, 문법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는 수동자의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표층주어의 한정성의 유무가 중간동사구문의 문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모국어 화자들조차 중간문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 불분명하며, 현재까지도 중간문의 정의와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surface subject), 함축된 행위자 주어(implicit agent subject), 중간동사의 의미적 속성, 또 양태부사의 사용 유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거리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중간동사구문 형성에 대한 피영향성 조건과 제일 책임성 조건과 같은 제약 조건들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용된 모든 중간동사구문의 일반적인 특징은 동사의 상적 의미자질 소유여부도 중요하지만 표층주어가 어떤 특정한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일정한 시간경계 안에서 사건, 상태, 속성의 변화가 존재하는지와 관련된다. 표층주어는 행위자 역할을 제외한 다른 의미역을 가진 논항으로 채워지고 이 표층주어의 한정성 유무가 중간동사구문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4. 제안 및 적용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간동사구문의 새로운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위에서 제시되었던 예문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중간동사구문의 일반적인 의미적 특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총칭성 (genericity), 양상성(modality)과 관련하여 Iwata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Hale and Keyser는 총칭성의 의미를 지닌 (18)과 같은 전형적인 중간동사구문이 진행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예문으로 (20)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Iwata는 (20)의 비한정적 주어가 한정적 주어로 바뀔 경우 (21)과 같이 해당 문장의 문법성이 바뀌지 않음을 보여준다.

- (18) a. Bureaucrats bribe easily.  
b. Chickens kill easily.
- (19) a. Those bureaucrats bribe easily.  
b. Those chickens kill easily.
- (20) a.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b. \*Chickens are killing easily.

- (21) a. Those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 b. Those chickens are killing easily.

(18)와 (20)의 중간동사구문의 주어는 비한정적 주어이며, 이 주어는 현재 시제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나 진행상으로 바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19)와 (21)의 중간동사구문의 주어는 한정적인 주어이며, 이 주어는 현재 시제 뿐만 아니라 진행상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Iwata는 (20)이 비문인 이유가 중간동사구문이 반드시 총칭성을 유지해야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상과 어울릴 수 없다는 Hale and Keyser의 주장을 반박한다. Iwata는 중간동사구문이 총칭적 중간동사구문과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의 비한정적 주어가 한정적으로 바뀔 경우에도 해당 문장이 정문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20)과 (21)의 문법성의 차이의 원인이 해당 주어의 한정성 의미자질 유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예시해 준다. Iwata의 주장에서 보여지 듯 중간동사구문의 주어가 한정성 자질을 가진다는 사실은 중간동사구문의 의미적 특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4.1. 중간동사의 종류

Rapport(1999)는 중간동사구문이 사건에 대하여 일반화되는 경우와 일반화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를 ‘습관성 중간동사구문’(habitual middle)이라 후자를 ‘능력 중간동사구문’(capacity middle)으로 구분한다. 습관성 중간동사구문에서 부사류는 명시적으로 습관을 보여주지만 능력 중간동사구문에서 부사류는 어떤 사건의 존재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능력 중간동사구문에서 의미하는 특성은 실제적인 사건에 기초한다기 보다는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대에서 보여주는 표층주어의 변함없는 속성을 보여준다.

- (22) This paper reads daily. (습관성 중간동사구문)
- (23) This paper reads easily. (능력 중간동사구문)

Rapoport는 습관성 중간동사구문만이 사건의 존재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lingvall(2003)은 (23)과 같은 구조가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3)에서 부사가 명시적으로 습관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습관의 해석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Reading easily’는 ‘the paper’의 성질이며, 신문이 읽혀질 때 독해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해석에 해당하며 또한 Fagan and Rapoport는 ‘Reading easily’의 성질이 사건과 관계없이 주어 ‘the paper’의 능력만을 지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많은 중간동사구문이 문맥상에서든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든 중의성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Klingvall은 일부 중간동사는 습관 중간동사와 능력 중간동사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중간동사들은 한가지로만 해석된다고 지적한다. (22)는 습관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나 아래 (24), (25)는 반대로 능력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24) This chicken kills easily.

(25) This vase breaks easily.

(24)과 (25)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기 보다 오히려 (24)에서 닭이 한번 죽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며 (25)에서 역시 화병이 일단 깨짐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Klingvall은 (24)과 (25)가 능력과 관련된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부사류 존재에 상관없이 영어중간동사구문을 습관적 중간동사구문과 능력 중간동사구문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중간동사구문의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 그러나 Klingvall의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22)–(25)까지 모든 문장들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당 중간동사의 표층주어의 한정성 유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만약 (22)의 주어가 비한정성 주어로 대체된다면 습관적 해석만이 가능하다.

(26) Papers read daily.

(22)의 표층주어 'this paper'가 '바로 이 특정한 신문'을 의미할 경우는 주어  
 어가 지시하는 한정성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이 경우 중의성이 존재한다.  
 즉 이 신문이 일상적으로 읽혀진다는 습관적 해석뿐만 아니라 이 신문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쉽게 읽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24)와 (25)도 중의적 해석이 발생한다. Klingvall은 (24)에서  
 'this chicken'이 '바로 이 특정한 닭'일 경우는 능력과 관련된 해석만이 가능하  
 다고 주장하지만 'this chicken'을 '이런 종류의 닭'일 경우는 능력과 관련된 해  
 석뿐만 아니라 습관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Fagan은 현재시제에서 모든 중간동사가 행위자역의 외재논항을 비명시 논  
 항으로 가지며 그 의미적 특성을 '일반적인 사람들'로 이해되는 총칭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wata는 중간동사구문의 비명시 논항이 항상 총  
 칭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시제 문장과 진행상 문  
 장의 예를 제시한다.

(27) a. The paint we were persuaded to buy sprayed on evenly.  
 b. Grandpa went out to kill a chicken for dinner, but the chicken he  
 selected didn't kill easily. (Iwata 1999: 530)

(28) a. These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b. These chickens are killing easily.

이 예문과 함께 Iwata는 중간동사구문에 한정성 주어가 사용될 수 있는지는  
 중간동사구문이 과거시제나 진행상을 취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  
 한다. 즉 다음과 (28)의 주어가 비한정적으로 바뀔 경우 아래 문장은 비문이  
 된다.

(29) a. ?\*Bureaucrats are bribing easily.  
 b. \*Chickens are killing easily.

Iwata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과거시제와 진행상과 함께 쓰이는 중간동사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진행되는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에 비한정적인 주어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한정적 주어를 가지는 중간동사는 주어가 총칭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건을 기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Iwata의 주장을 (22)-(25) 문장에 적용시키면 과거시제나 진행상이 아닌 현재시제 중간동사구문에서도 구체적인 비명시 논항을 포함할 경우 함축되어 있는 논항(implicit argument)이 이 구체적 행위를 실천한 행위자가 된다. 즉 중간동사구문이 총칭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은 절대적인 제약 조건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중간동사구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중간동사 자체의 상자질, 함축된 행위자 논항, 혹은 중간동사구문에 존재하는 부사류의 역할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중간동사구문 표층주어의 연구 역시 표층주어가 어휘부 혹은 통사부에서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이동해 수동자역이나 대상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제일 책임성 원리나 피영향성 조건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가 가지는 한정성 의미자질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중간동사의 다양한 특질을 연구하는데 한계점을 노출시켜 왔다.

## 4.2. 적용

다음에서 우리는 중간동사구문 표층주어의 한정성 유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예를 살펴보고 중간동사구문의 다양한 유형들 사이의 차이점과 중간동사구문과 능격동사구문 사이의 차이점이 각 구문의 표층주어가 갖는 한정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표1)

	중간1구문	중간2구문	능격동사구문
표층주어	비한정적 주어	한정적주어	한정적주어
반복상	예	예/아니오	아니오
상태성/사건	상태성	상태성/사건	사건
함축된 행위자 주어	총칭적	비총칭적	없음

(표1)에서 중간1구문은 비한정적 표층주어와 총칭적인 함축된 행위자주어를 가지며, 표층주어의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속성과 함께 상태성의 상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중간동사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2구문에서 한정적 표층주어는 특정한 개체나 특정한 개체를 지칭하며, 비총칭적 함축된 행위자주어를 가진다. 특정 개체 혹은 특정 개체의 종류를 지칭하는 표층주어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상뿐만 아니라 상태성의 상적 의미 지닌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문장이 진행상과 과거시제 문장에서 현재나 과거의 일시적인 사건을 의미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중간2구문이 특정 사건의 시점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중간1구문의 특질과 동일하지만 두 구문 사이에는 실제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Ihsane and Puskas(2001)은 한정성이 명사류에 의해 표현되는 실체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정성은 명사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sup>8)</sup> 한정적인 주어와 비한정적 주어의 차이는 해당 논항이 지시사나 정관사와 같은 한정사의 수식을 받는가에 의해 결정된다.<sup>9)</sup>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간동사구문에서 표층주

8) However, as shown in (14), it appears that the presupposition of existence as a property of definiteness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 morpho-syntactic reflex of definiteness in the nominal system. The following sentences are well formed even though rooms typically have more than one wall, rivers more than one side, and people more than one foot.

i) My uncle wrote something on the wall.

ii) We camped by the side of a river.

iii) She shot herself in the foot.

9) Abbott(2003)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정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 영어 DP는 복수형 아니면 물질명사이다. 이들의 사용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영어 복수형 DP는 (i)에서와 같이 보통 총칭적으로 해석된다.

i) a. Mary likes sharpened pencils.

어가 가지는 한정성 의미자질과 총칭적 해석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간동사의 함축된 행위자 논항이 총칭적인 해석을 가질 경우 해당 논항은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일반적으로 임의적인 지시물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과 연계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표층주어는 항상 비한정적 의미자질을 가진다. 반면에 중간구문이 현재진행형이나 과거시제와 나타날 때는 함축된 행위자주어는 구체적인 비명시 논항으로 해석되며 표층주어 역시 한정적 의미자질을 가진다. 중간구문에서 표층주어가 한정적 의미자질을 가질 경우에도 표층주어가 특정 개체를 지칭할 때 보다 특정 개체의 종류를 지시할 때 반복상의 의미가 약화된다.

Iwata(1999: 536)는 중간2구문의 표층주어는 종류를 지시할 때 비명시 논항의 총칭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표층주어가 한정적일 경우 어떤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총칭적인 주체로서의 함축된 행위자주어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총칭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아래 (30a,b)는 주어 ‘this book’과 ‘this car’의 지속적인 상태의 속성을 의미하거나 혹은 해당 주어의 일시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 (30) a. This book reads easily.  
 b. This car handles smoothly. (Iwata 1999: 536)

(30a,b)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과 같은 총칭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간1구문과 구분된다. 아래 예는 (30b)의 진행상과 과거시제 문장들이다.

- 
- b. Water with fluoride in it is good for the teeth. (Abott 2003: 6)  
 반면 일부 복수형 DP는 존재적 해석(existential interpretation)을 갖는데, 이들은 (ii)에서와 같이 일부의 구성요소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한 범주의 일부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ii) a. Mary bought sharpened pencils.  
 b. There was water with fluoride in it in the test tube. (Abott 2003: 6)  
 이들은 주로 처소격 존재문(locative existential sentence)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총칭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중간동사구문의 비한정 표층주어는 주로 (i)에서와 같이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D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1) a. This car handles smoothly.  
 b. This car is handling smoothly.  
 c. This car handled smoothly.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31a)가 지속적인 상태의 속성을 의미하는 해석 외에도 (31b)와 같이 진행상 혹은 (31c)와 같이 과거시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은 중간2구문이 사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한정적 표층주어를 가진 중간동사구문의 사건이 화자와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간1구문과 중간2구문의 차이는 표층주어의 한정성 의미자질 유무에 달려있다.

우리는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의 한정성 유무에 따라 중간동사구문을 중간1구문, 중간2구문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위 도표에서 능력동사구문은 한정적인 표층주어를 가지며 이 경우 표층주어는 중간동사구문과 다르게 특정한 개체만이 주어라 될 수 있다. 여기서 중간동사구문과 능력동사구문 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심이 발생한다. 능력동사구문의 일부 특징이 비총칭적 중간동사구문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구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래 (32)에서와 같이 능력동사의 ‘한정적 주어’는 주어라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중간동사 ‘한정적 주어’와 유사한 성질을 보이거나, 능력동사구문은 함축적 행위자주어를 결핍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동사구문과 구별된다.<sup>10)</sup>

- (32) a. The stone is rolling down.  
 b. Yesterday, a vase broke.<sup>11)</sup>

10) 이는 능력동사구문이 ‘all by itself’와 함께 쓰이고 중간동사구문은 동일한 표현과 공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11) Eng(1999:9) discussed characteristics of indefinite DPs, which are ambiguous with respect to specificity, as shown below:

i) a. John saw a woman.

b. John saw a woman. She was carrying a box

In (ib), the indefinite DP, a woman, is specific if it denotes a weak relation to previously established discourse; whereas, in (ia), a woman is nonspecific if it lacks an antecedent in the discourse altogether. In sum, specific DPs, whether

Fellbaum(1986:6)은 중간동사 다음에 용이성을 뜻하는 일반부사 혹은 부사상당어구만을 허용하며 수반되는 부사는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부사는 주로 장소나 양태 혹은 다른 장치의가 부사적 기능을 위하여 실현된다. Fellbaum은 (33)에서 ‘the door closes easily’에서 ‘close’는 능격동사와 중간동사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 (33) a. The door closes easily; you just have to press down. (중간동사)  
 b. The door closes easily; it only takes a gust of air. (능격동사)

(33a)의 중간동사구문은 총칭적 행위자가 문을 쉽게 닫는 의도적 행위가 함축되어있으며, (33b)의 능격동사구문은 자연현상과 같은 어떤 손쉽게 유발되는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사건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능격동사구문의 행위자는 의미구조나 논항구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Fellbaum은 담화맥락에서는 능격동사구문의 지시되는 사건의 유발자(instigator)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4) The butter melted (quickly). (Fellbaum 1986:9)

Fellbaum은 부사나 부사에 상응하는 표현의 존재여부가 두 구문의 의미적 특징을 구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능격동사구문 (34)은 사건의 발생을 알려줄 뿐 사건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필요하므로 방법부사나 부사상당어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4)에서 Fellbaum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양태부사 ‘quickly’의 있을 경우 (34)는 중간2구문과 능격동사구문으로 해석되고, 양태부사 ‘quickly’가 없을 경우는 오직 능격동사구문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한정적 표층주어를 가진 (35)는 중간1구문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 또한 표층주어가 갖는 한정성 유무가 중간구문과 능격구문

---

they are definite or indefinite, have the same feature for specificity. This depends on whether they are linked to previously established discourse referents.

의 성격을 구분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 Butter melts quickly.

다음에서 sell동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 (36) a. This book sells well.  
 b. This book sold well.  
 c. This book is selling well.

Iwata는 ‘sell’동사가 총칭성과 관련해 다른 중간동사들과 다르게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중간동사구문은 실제적인 사건의 발생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의 잠재성을 언급하나 ‘sell’은 실제적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이 특정한 책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반복적으로 구매되고 있는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간동사 ‘sell’은 반복의 의미를 가진 ‘every day’나 진행상을 통해 일시적인 반복상을 표현할 수 있다.

- (37) a. This book sells well every day.  
 b. This book is selling well these days.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보통의 중간동사는 ‘every day’나 ‘these days’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Iwata 1999: 549).

- (38) a. \*This book reads easily every day.  
 b. \*This book is reading easily these days.

Iwata의 주장은 (표1)에 근거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즉, ‘sell’동사는 총칭적보다는 비총칭적인 제한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표층주어가 한정적일 때 최적의 해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예문 (37)은 중간2구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sell’은 다른 중간동사들과 다르게 중간동사구문에서

표층주어가 지니는 지속적인 속성의 해석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표층주어의 지속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경향(trend)의 해석을 보여준다. 이런 다른 성격의 동사에 대한 세세한 분류작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므로 다음 연구에서 시도해 볼 일이다.

우리는 앞 절에서 창조동사는 중간동사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아래 (39)에서 창조동사 'build'와 'write'는 의미적 성격상 그들의 표층주어가 어떤 특정한 속성의 소유여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사건의 상태변화를 거쳐 자신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간동사구문에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40), (41)의 표층주어 'this pen'과 'love letters'는 어떤 완전한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의 시간 경계 안에서 사건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간동사구문에서 사용가능하다.

- (39) a. \*This bridge builds easily.  
b. \*This poem writes easily.
- (40) This pen writes well.
- (41) Love letters write easily. (Chun 2003:145)

(39a.b)는 한정적 주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주어의 일반적 속성에서 기인한 총칭적인 사건이 아닌 주어 개별적인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0)의 한정적인 주어 'this pen'과 같이 해당동사의 내재논항이 아닌 도구역이나 재료역을 가진 논항은 중간동사구문의 주어의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41)은 비한정적인 주어인 'love letters'는 일반적인 러브레터라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총칭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간문 주어의 한정성 유무는 중간문의 총칭적/비총칭적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본인이 문법성 판단을 의뢰했던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들은 아래 예문들이 문맥상에서 용인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39a') ?This bridge is building easily.

(39b') ?The poem is writing easily.

위에서도 (39a,b)가 비문인 이유는 사용된 동사의 상자질, 반복성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9a',b')에 모국어 화자들에 의해서 용인가능한 것은 이들 동사들이 다른 문맥에서 상자질 전이 현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this bridge'는 한정적인 의미와 '이런 종류의 다리' 혹은 '그런 종류의 시'와 같은 비총칭성의 의미를 지닌다.

## 5. 결론

이 논문은 영어중간동사구문에서 표층주어의 한정성 의미자질의 유무와 총칭성의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간동사구문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간동사구문의 특성을 분류하게 위해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간동사구문의 일반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동사구문의 표층주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적 특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중간동사구문의 원형은 비한정적 표층주어를 가지고, 그 표층주어는 어떤 특정한 속성을 소유하고 이 속성이 해당 상의 시간경계 안에서 사건의 상태변화의 존재여부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표층주어가 한정적으로 실현될 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비명시 행위자 논항은 총칭적 의미적 속성을 잃어버리고 비총칭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이유로 비총칭적으로 해석되는 중간동사구문이 진행상과 과거 혹은 미래시제에도 나타날 수 있다. 한정적 표층주어를 취하는 중간동사구문은 주어의 지속적인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해석뿐만 아니라 사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중의성이 지금까지 중간동사구문의 연구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런 중간동사구문 형성에 나타나는 중의성의 파악은 중간동사구문이 능격동사구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 인용문헌

- Abott, Barbara. The Difference between Definite and Indefinite Description. Presented in LSA. 2003.
- Chung, Taegoo. "A Semantic Condition on English Middles: A Causative Approach."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4 (1995): 271-88.
- Fagan, Sarah. *The Syntax and Semantics of Middle Construction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 Cambridge: Cambridge UP, 1992.
- Fellbaum, Christiane. *On the Middle Construction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86.
- Fellbaum, C. & A. Zribi-Hertz. *The Middle Construction in French and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89.
- Hale, Kenneth and Samuel Keyser. "A View for the Middle,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10.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IT P, 1987.
- Ihsane T. & G. Puskás. "Specific is not Definite." *Generative Grammar in Geneva* 2 (2001): 39-55.
- Iwata, Seizi. "On the Status of an Implicit Arguments in Middles." *Journals of Linguistics* 35 (1999): 527-53.
- Jackendoff, Ray. *Semantic Structures: Current Studies in Linguistics*. Cambridge, MA: MIT P, 1995.
- Keyser, Samuel and Thomas Roeper. "On the Middle and Erg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5 (1984): 381-416.
- Klingvall, Eva. "Aspectual Properties of the English Middle Constructio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volume Three*. The Department of English in Lund. (2003): 1-12.
- Lee, Myung-Ock. "Event Structure Analysis of the English Middle Construc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09): 333-57.
- Lekakou, Maria. "Middle Semantics and its Realization in English and

- Greek." *Working Paper in Linguistic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P, (2002): 399–416.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 MIT P, 1995.
- Massam, D. "Null Objects and Non–thematic Subjects." *Journal of Linguistics* 28 (1992): 115–37.
- Rapport, T.R. "The English Middle and Agentivity." *Linguistic Inquiry* 30.1 (1999): 147–55.
- Roberts, Ian. *The Representation of Implicit and Dethematized Subjects*. Dordrecht: Foris, 1987.
- Stroik, Thomas. "Middles an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3 (1992): 127–37.
- van Oosten, Jeanne. *The nature of subjects, topics, and agents: a cognitive explan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86.
- Villagana, Christina. "Subject Prominence in English Middles." Presented in LSA. 2001.

Abstract

## On the Surface Subject of the Middle Constructions

Tae-Soo Sung

We will discuss what effect the definiteness of the surface subject has on the derivation of middle constructions. Following Iwata(1999)'s claim that middles should be sensitive regarding genericity, the adverbial effect, modality, and implicit arguments, but some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while others are just typical, we will focus on clarifying the distinctions between generic middles and non-generic middles.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middle constructions are two: first responsibility and change of the property or event. In order to form a wholly generic middle construction, the implicit argument is generic and the surface subject is also indefinite. In non-generic middle constructions, however, the more specific the middle situation is getting, the more definite the surface subject becomes. When the surface subject is definite, the range of the implicit argument is confined to a unique class of individuals or a unique individual. In this respect, the definiteness of the surface subject plays a crucial role in deriving non-generic middle constructions. Therefore, we divide the middle constructions into three categories.

**Key words:** middle constructions, definite, indefinite, generic, non-generic, surface subject

중간동사구문, 한정적, 비한정적, 총칭적, 비총칭적, 표총주어



논문접수일: 2011. 11. 01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20

이름: 성태수

소속: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주소: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10319호

이메일: taesung@nsu.ac.kr

K C I

к с і